# 전남 바다양식장 여의도 10배 는다

## 8개 품종 2만7700ha 개발 승인…면적 8500ha 증가

올해 전남에서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바다 양식어장이 늘어난다.

전남도는 "정부로부터 김·미역·전복·어류·굴·멍게·미더덕·홍합 등 8개 품종에 걸쳐 2만7700ha의 연안 양식어장 개발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12년 어장이용 개발계획 기본지침'에 따른 것으로, 신규 양식어장 개발 승인은 1999년이후 13년만의 조치다.

어장 이용 개발 유형별로는 ▲노후된 전복·해조류 양식어장 등 대체개발(재배치) 6300ha ▲어업면허 기간만료에 따른 재개발 어장 4200ha ▲신규개발 어장 5800ha ▲기존 어장의 확대개발 1만1400ha다.

이번 어장 이용 개발로 실제 늘어난 어장 면적은 8500여ha로,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늘어난 어장은 양식 품종별로 김·미역·다시마 등 해조류 양식어장이 4185ha, 전복·고막·굴 등 패류어장이 1230ha, 전복·미역·다시마를 복합적으로 양식할 수 있는 복합어장이 1920ha, 마을어업은 1165ha다.

전남도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생산량 부족으로 국내외 수출 및 가공·유통 물량 확보에 곤란을 겪은 전복 등 해조류 대량 양산 체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어장 이용개발은 그동안 전남도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어장 확대 개발을 건의해 일궈낸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 이들 어장에 대해 고품질 수산물 생산이 가능토록 철저히 관리해 경쟁력 있는 친환경 수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수산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과자야 내 입으로 빨리 들어와"

목포 산정초등학교(교장 박광남) 학생들이 최근 열린 체육한마당에서 과자따먹기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 1933년 목포 제2보통학교로 개교한 산정초등학교는 지금까지 3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kwangju.co.kr

# 경제효과 1700억 '목포 세라믹 산단' 개발 순조

### 올초 착공 공정률 16%

목포시 연산동 일원 11만6455㎡에 조성중인 '세라믹 일반 산업단지' 개발사업〈사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5일 목포시에 따르면 올해 초 본공사를 착공해 현재 절토 및 성토작업 등 1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시는 첨단 세라믹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15억원을 투자하여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내년까지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시설 및 포장 등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분양가를 결정해 국내의 세라믹 전문 기업들에게 토지를 매각, 세라믹 전문 산업단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시는 ㈜신일 세라믹스 등 9개 세라믹 전문 기업과 지난 2009년 3월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세라믹 산단 생산지원동(5131㎡) 건립을 완료한데 이어 고기능 세라믹 원료소재산업 생산기반 구축(장비 21대·165억원 ) 사업을 2016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세라믹 일반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1700억여원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 "여수·순천·광양 일방통행식 통합 안된다"

### 광양시의회, 도시통합 방침 철회 촉구 성명

광양시의회(의장 박노신)는 14일 임시회에서 전체의원 발의로 도시통합 방침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은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의가 여수·순천·광양시를 통합 필요지역으로 분류하고 지역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정부 주도로 일방적 통·폐합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취해졌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2007년과 2009년 3시(市)의 도시통합 추진과정에서도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지난 3월 20일에는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지방행정 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도시통합 의견 요구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의 도시통합 의도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시했다.

광양시의회는 "도시통합의 궁극적 목적은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대전제 아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틀을 마련하자는 것이지만, 지역의 정서를 도외시한 물리적인 일방적 통합 추진은 지방자치의 근간인 민주성과 효율성의 저해와 부작용만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도시통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3시(市)의 일방적인 통합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시·군·구 통합기준 기본방향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일방 통행식 3시(市) 통합 추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광양시민과 함께 반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장마철 대비 안전관리 강화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행윤)는 다음달 8일까지를 장마철 대비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본부에서 시공중에 있는 210개 모든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일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전남지역본부는 ▲ 우기시 배수장 정상 가동여부 ▲배수로 정비 ▲홍수대비 시설의 안정성 확보여부 ▲돌풍으로 인한 낙하 위험물 제거 여부 ▲수해방지대책 수립 여부 ▲수방자재 확보 등 공사 현장내에서 재해 발생 예방 조치여부와 재난대책 비상체제 운영 정비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여수시, 박람회 기간 개인이익 위한 부당집회 엄벌

여수시가 박람회 기간 동안 개인의 이익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시는 세계박람회장 앞에서 1인 시위와 집회를 벌이고 있는 ㈜흥이 있는 대한민국 엄금자 대표를 14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엄 대표는 세계박람회 개막식인 지난 11일부터 박람회장 입구에서 "김충석 시장의 사퇴와 서커스 주관사인 김 모(41) 대표를 즉각 구속하라"며 1인 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시는 지난 2010년 10월 14일 박람회 기간 세계적인 서커스 유치를 위해 ㈜아티스트 미디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지만 사업진척이 제대로 되지 않자 지난 3월 7일 업무협약을 해지한 바 있다. 지난 11일 개장한 서커스는 시예산 지원 없이 오히려 서커스 부지 임대료를 시가 징수한 걸로 밝혀졌다.

여수시 관계자는 "엄 대표가 서커스 주관사 김모 대표와의 계약관계 등의 개인간 이해관계가 해결되지 않자 시장님과 시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걸로 보인다"며 "세계 박람회를 빌미로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 시장님과 여수시가 마치 특혜를 준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 대불부두 배후부지 창고시설 늘어난다

### 곡물 1만2천t 동시보관 규모

오는 12월 목포항 대불부두 양곡화물 시설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청장 최익현)은 그동안 목포항 대불부두에서 취급하는 양곡화물의 품질제고 및 기능시설 부족에 따른 시설 사용자의 이용불편 개선을 위해 대불부두(63번 선석) 배후부지에 창고시설을 확충한다.

이번 신설되는 창고시설은 곡물류 1만2000t을 동시에 보관할 수 있는 규모로, 오는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창고시설이 확보되면 기존 운영시설 대비 일시 보관능력이 24% 증가한 6만2000t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목포항 대불부두에서 처리하는 양곡화물은 2011년 기준 20만여t으로, 이중 20% 정도를 창고시설이 아닌 야적장에서 취급해 부패 등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목포 항만청 관계자는 "창고 신축으로 부두내 취급화물의 품질제고는 물론 현대화된 기능시설 확보로 종전보다 15만t이 증가한 연간 50만t의 화물 취급능력을 보유함으로써 향후 신규물량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 포스코 외주 ㈜성광기업 노·사 상생 선언

포스코 외주사인 ㈜성광기업 (사장 서정복) 노·사는 15일 임직원 2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사 상생 선언식을 가졌다.

㈜성광기업은 지난 1월 전 회사가 포스코에 사업을 반납함에 따라 근로조건 저하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 협약을 체결하고 포스코 광양제철소 외주 파트너사로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

특히 출범 초기 '넘버 원 포스코 패밀리(posco family) 2015' 비전을 갖고 노사문화·안전보건·혁신활동·고객서비스·사회공헌의 5대 핵심전략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실천 항목들을 개별 MBO로 설정 실행하고 있다.

서정복 대표는 "직원들과 신뢰를 쌓기 위해 전 직원을 집으로 초청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며 "현장에서 직원들과 중식 미팅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무 조건을 파악해 신속히 개선하는 '스킨십 경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광기업은 광양제철소 열연·냉연·도금공장 등에서 천장 크레인 운전, 각 공장내 부대작업 및 외주작업, 철도상차 운송작업, 제철소내 전역 슬링 와이어 로프를 제작해 납품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